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인로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천주교주교회의 주교회의 주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정호

찬양으로 풍성한 교구,
십자가로 하나되는 교구

주일찬양예배 시 교구찬양 시작

지난 주일(6일) 찬양예배 시에 드린 1교구의 찬양으로 교구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일찬양예배 시마다 각 교구가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골 3:16) 보통 교구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너 달 전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찬양이 단순히 준비한 노래를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찬양을 담당하는 교구는 먼저 영적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히 10:22)

특히 교구찬양에는 얼마 품에 안긴 아기에서부터 거동이 쉽지 않은 어른



들까지 그야말로 교구가족이 모두 나와 하나되는 시간이기도 한 교구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서로 잘 몰랐던 교구 내 가족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전 1:10) 결국 교구찬양을 통하여 각 교구는 찬양을 통한 기쁨과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십자가로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교구찬양을 통하여 모든 교구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초석이 되길 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 113:3) 아멘.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거듭남 (요한복음 3:3)

를 나눌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적 진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이며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고전 1:17~18)

우리는 종종 새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죄의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본성은 거듭나야만 한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거듭남은 영적 탄생이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 같은 육적 탄생이 아니다. 그러나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육적 탄생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영적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요 1:12~13)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님도 즉시로 대답하셨다. (행 9:5)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하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직접 만나 거듭남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들도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다. 영적 태어난이 없는 사람은 영적 삶을 살 수 없다. (요 3:3) "결단코"라는 이토록 강한 표현은 분명 한 진리를 언급하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임으로 그 근본에서 나오는 것은 곧 죄뿐이다. (요 3:6) 자기 자기 자신만을 만들고 또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 속에는 인간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엡 2:3 : 롬 8:6~8)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 오셔야만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분명히 거듭나야만 한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하는 행위(자선사업, 선물, 헌금 등)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영적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롬 8:5 : 고전 2:14)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임을 말씀하여 주셨다.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가? 거듭나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왜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뜻과 생각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는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하다. 영적 여동무와 혼란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요 3:5,36)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듭남이 이토록 무서운 우리들의 형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가?

먼저 이 거듭남은 영적 생명을 가져다준다. (엡 2:1~3) 죽을 영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많은 종교와 교육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인간 자신은 구제불능의 상태란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행복하다.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듭남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엡 3:4~5) 또한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우리 죄의 장막들을 걷어 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한다. 더 이상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영적 진리를 향해 응답할 수 있게 한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제 복음을 감당하고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베드로 역시 육의 탄생과 영의 탄생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벧전 1:23~25) 베드로는 육의 탄생을 가리켜 "씨어질 씨"라고 부른다. 영의 탄생 역시 그 씨가 심겨져야 하며 이 씨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심겨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게 하신다. (롬 10:17) 복음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삶, 새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UNCHANGING GOD

*For I, the Lord, do not change;
therefore you, O sons of Jacob, are not consumed.
(Malachi 3:6)*

We live in a changing world. Change is everywhere. The weather changes, the names of nations change, social structures change, fashion changes, the temperature changes, ways of living change, technology changes, boundary lines change, etc. Our environment, physical bodies, and emotions always change. Even our goals and convictions change. Time changes many things, except God. God never changes, "For I, the Lord, do not change." (v. 6) We have an unchanging God. Consequently, He is faithful to His covenant, and we, His children, survive, "therefore you, O sons of Jacob, are not consumed." (v. 6) The sons of Jacob, Israel, is a term used to denote God's chosen people.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God's chosen people, and these people will not burn after Judgment Day. Since God is unchanging, some things never change. What kind of things never change?

The wages of sin never change in front of God. If you sin, you have to face the punishment. No excuse or lie can fix sin.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In spite of inflation, the wages of sin remain the same. The warning was given in the Garden of Eden,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Gen. 2:16-17) Satan told Eve, "You surely will not die!" (Gen. 3:4) That was a big fat lie that seems to carry on. Today, a lot of people lie and think that God will change. The first sin brought spiritual death, and ultimately physical death, which continues to all people. Romans 5:12 says,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In other words, you are born to die. Hebrews 9:27 says,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Wherever you go, whatever country you visit, you will always find a cemetery. Death is unavoidable to everyone except the true Christians present when Christ returns.

The law of harvest never changes. You reap what you sow. If you sow a bad apple, you will reap a bad apple. If you sow a good apple, you will reap a good apple. Whatever you sow, you will reap. Galatians 6:7-8 says,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This rule is unchangeable. As such, it is impossible to sow sin and reap blessings. Everyday along life's way we are sowing. Our harvest is both discouraging and delightful. Today's Christians need to spend more time sowing to the Spirit. Too much time and energy is being wasted sowing to the flesh. The world loves to sow to the flesh, so Christians need to be careful not to get caught up in it. Think about the changes you need to make in your life in light of the coming harvest.

God's love never changes. Romans 5:8 say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His love is the most marvelous, greatest love ever to be had. When you sinned, He loved you. When you forgot Him, He still loved you. Even during the times of your worst behavior and thoughts, even when you cursed Him, He still loved you. He loved you before you were born, before the stars began to shine, He loved you. He never ceased loving you all these years. The cross proved His love! God's gift of His Son guarantees eternal life for sinners-there is no greater love. This is the greatest love of all! John 15:13 says,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Please remember,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My dear friends, you can be sure that the wages of sin, the harvest law, and God's love will never, ever change. These unchanging truths are life changers in and of themselves. Has your life been changed by the unchanging God? Will you come as a sinner to the unchanging Savior? 

다음 주일 설교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6)



김성관 목사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씨나 국가의 이름, 사회적 구조도 변하고, 패션도 바뀝니다. 기후, 삶의 스타일, 기술, 국정선도 바뀝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항상 변합니다. 때로 우리의 목표나 확신마저도 변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6절)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자녀 된 우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6절)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까?

변치않는 죄의 삯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삯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애덴동산에서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그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변하실 것이라고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는 영적인 죽음,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27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를 방문 하든지 항상 모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치않는 추수의 법칙

추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쁜 씨를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좋은 씨를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법칙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수확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육체를 따라 심는 일에 허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임박한 추수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8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 본 사랑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별들이 빛을 발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13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삯과 추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구세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 9.)

아름다운 초대교회

(사도행전 2:41~46)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는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경영자는 성령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은총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으로 바뀌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려고 할 뿐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만수이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되어 기도하며 내린 결론처럼 인간 중심의 감성적인 교회가 참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된 디스라엘(사 19장)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든 악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를 보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행 1:5~8)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거듭났다. (행 2:1~4) 이전에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비방하였으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소치했던 악인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자아'와 '욕망' 대신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들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우셨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히 믿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1~42)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다. (고전 11:23~26)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듯이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 6:3~4)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거나 교회를 흔들지 않았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자신들과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였을 뿐이다. (마 28:18~20)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자였다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다른 자들을 사랑하였다.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동족 간에도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과의 나눔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필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4~46) 성령충만한 그들의 심령에는 오직 보혈만이 흘러 넘쳤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같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히 10:25)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많은 자들을 사랑하였다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많은 자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인위적이지 않았다.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많은 자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과거의 악행을 들어 조롱하려는 달굴한 유혹이 있었지만 보혈로 충만한 이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기에 그들은 온 땅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였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찬 210장)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심령은 보혈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으며 십자가는 서로 더 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에 차고 넘쳐 결국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자.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 붙들 때 우리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성도의 교회로 거듭날 것이다. 온 땅 열방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이 땅이 밝아오나니." (찬 550장) 아멘.

마가복을 강해 10

* 매주 발효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 때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풀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 1:40) 이 나병환자의 행동은 명백히 율법을 범한 행위였다. (레 13:45~46) 나병의 진단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으며, 나병환자는 그 병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과 절절히 격리되었다. 따라서 나병환자는 단순한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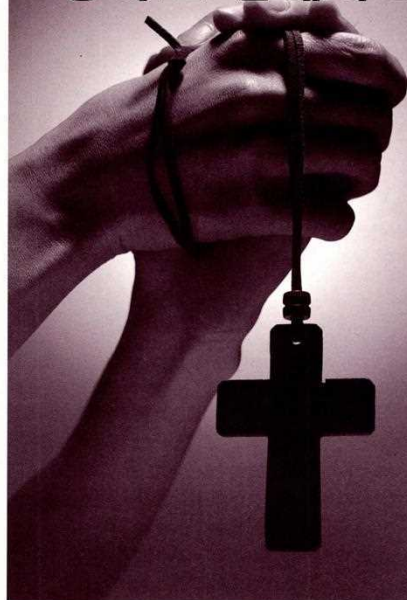
특히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표시였다. 모세를 대항했던 미리암(민 12:9~10), 탐욕에 눈멀었던 개시시(왕하 5:27), 교만에 빠졌던 웃시야(왕하 15:5; 대하 26:20~21)의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다. 이처럼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나병의 원인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 한 명의 나병환자가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를 끌어올려 여기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 1:41) 권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는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마 1:42)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러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다. (마 2:5, 10; 눅 7:12~13) 율법이 내려진 이후에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오직 한 명, 이방인이었던 나이만 뿐이었다. (왕하 5:14)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이만뿐이었느니라" (눅 4:27)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병환자를 포함한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감히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1:40~45)

나병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당시 율법과 전통을 깨민서까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나병환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와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이처럼 나병환자가 치유된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 11:24) 물 위를 걸다 거친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의 기도를 기억하는가?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 14:30) 예수님 앞에 선 우리는 단순해야 한다. 자주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자신이 처한 다양한 형편, 여러 이유를 대며 도와달라고 하지 말자. 그저 참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자. "주여 원하시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 8:2)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쳐 주신 후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마 1:43~45)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같은 믿음의 순종과 자기부인이 있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하루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참조주의 보혈을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 8:3)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성탄절 가족연례예배 때 저와 남편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07년 10월에 남편은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도 다시금 들렸습니다. “네, 주님! 삶과 죽음은 오직 주님의 권한입니다.” 말씀이 저를 붙들었고, 비교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수술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마취 담당의사가 오더니 마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당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의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시 한번 해 보세요.”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마취가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남편의 숨이 고르지 않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절에 다니시던 시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이제 교회에 나오십니다.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십니다.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실 때면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남편은 뇌 뿐만 아니라 쇄골, 가슴, 척추,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인지능력도 회복되었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병을 맡아 하면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가정과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신년에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위한 사랑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임남빈(집사, 7교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아부 교사로 섬기라는 권사님의 권유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미루어 왔다. 이런 내게 기도 후원자로 참석할 선교 파송예배에서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빌립(행 8:26)처럼 핑계대지 말고 영아부로 가라!” 23개의 교회학교 중 나는 특히 영아부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의 영아 시절, 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이던 나는 영아부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연로하신 장로님의 율동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것도 영아부 예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누워 있고, 기어 다니고, 아장아장 걷는 아가들이 무엇을 알게 싶지만 아이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일 년이 지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고 율동을 따라하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아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영아부 교사로 3년째 섬기면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모든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달려 나가는 교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아들의 각 가정과 아가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교사로 영아부를 섬기고 싶다.

김경숙(교사, 영아부)

나의 구주가 되시니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법도에 따라 살다가 출가한 뒤 뽕동서를 따라 1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심자병원에서 하던 봉사를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가던 첫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열드린 채로 제 평생에 쓸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사람들을 피해 골목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하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저의 마음은 강퍅하고 어두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하러 말로 구하여 오신 주님, 주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어떻게 말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선물과 평화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아멘.

반병환(은퇴선사, 5교구)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의 주례 하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겠노라고 서약하였지만 결혼 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을 너무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다.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천원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형식적인 신자로 살았습니다. ‘4대째 믿음’이라는 자부심으로 형식적인 봉사를 하며, ‘이 정도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태화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내적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온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의 죄인이요, 괴수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돌아가신 한없는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불 붙듯이 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케 저희 부부는 각각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십자가의 사랑은 무한한가 봅니다. 아니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함경위(신집사, 18교구)



대학부 '여는마당' (신입생을 위한 말씀잔치)

회개의 재발견

대학입시 준비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던 나의 삶은 예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학부에 올라와 잘 적응도 못하고 어색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바로 나같은 대학부 신입생을 위한 말씀잔치인 '여는마당'에 참석하였다. 정말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특히 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의 회개는 자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생각 속의 회개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바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무지했던 나의 모습을 눈물로 쏟으며 회개하였다. 오직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은기(대학부))

그 사람에게 속한 자 회개하라!

'여는마당' 이것은 겨울성경학교의 축소판이고 또 친교중심으로 진행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별생각 없이 참석하였습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 여는마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때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대학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컸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자 회개하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나의 죄목들을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때 나는 이전에 지었던 저의 수많은 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다.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죄 가운데서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안락함이 크지만 이번 '여는마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으니 이제 저의 남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2008년! 올해에는 어떠한 은총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여! 날마다 통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이은혜(대학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바벨론 (Michael Watson 曲)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 137:1) 하나님은 이방국가인 바벨론을 그의 종(창 27:6), 그의 도구(창 27:6-9)로 쓰시며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을 빼앗겼으며 포로로 끌려갔다. 이처럼 조국의 비참한 멸망과 고단한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낯선 이방나라의 강변에서 노래하였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지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시 137:3).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 죄에 대한 회개(바벨론)에 담겨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다. 찬양의 전주는 마치 하프소리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 반주와 무언가 모를 연속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찬양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예루살렘"(39~41마디)과 두 번째 "예루살렘"(64~66마디) 부분인데 각각 8분음표와 3분음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가사를 보아도 처음은 "안식"(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주소서), 다음은 "자유"(우리 불쌍히 여기사 주여 자유케 하소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복의 길이 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는 이 찬양을 사순절(2.6~3.22)에 부르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김원식(집사, 찬양위원회)

2008년 겨울성경학교

나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예수님은 나를 은혜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저에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과 친구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걱정근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성경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와 "참 평안"(요 16:33)의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말씀 같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예수님의 평안을 알고 있음에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려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는데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다. 오직 저의 방패이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다.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 드립다."

(여영민(소년부))

예수님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다. 예배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 좋았다. 분

반공부시간에는 나의 방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였고 성경만씀도 함께 외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반 아이들과 신생반과 더 친해졌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 정말 맛있었다. 미니 올림픽에서는 8가지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익혔다. 끝없는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그동안 배운 성경말씀을 퀴즈로 풀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마지막 예배 때에는 "참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고 평안할 수 있음을 알았다. 참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다.

(강성온(초동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39	조윤봉	10 장안부	김종훈(14)	65	조영재	5 장안1부		91	박지현	6 장안2부	이진규(6)
40	황영록	16 대학부	김종훈(14)	66	장미애	4 고교부		92	박지현	19 장안2부	이규준(10)
41	김정림	7 장안부	김종훈(14)	67	김지연	4 고교부	변소복(4)	93	정경식	15 대학부	박유준(1)
42	유은정	17 장안2부	김종훈(14)	68	박광중	8 대학부	하(15)	94	박지현	21 고교부	김지현(8)
43	안성홍	21 장안2부	이은경(20)	69	이민연	15 장안2부	김경민(5)	95	김정현	7 고교부	김지현(8)
44	황의석	1 장안부	정창원(21)	70	황영주	24 장안1부	황진규(24)	96	최효진	11 고교부	최한(19)
45	황미애	1 유치부	박종훈(14)	71	서대건	11 대학부	최기영(13)	97	장성준	12 장안2부	최재영(2)
46	유국현	1 장안1부	정창원(21)	72	박지현	15 장안2부	정창원(21)	98	김도현	7 중동부	정창원(15)
47	김재우	18 장안1부	정창원(21)	73	박지현	4 중동부	정창원(21)	99	구효준	4 중동부	정창원(15)
48	김태욱	14 대학부	정창원(21)	74	김남준	15 장안2부		100	이복순	4 장안부	정창원(15)
49	김종민	8 장안2부	정창원(21)	75	전소희	15 장안2부		101	오수현	4 장안부	정창원(24)
50	이희숙	20 장안1부	이은경(20)	76	전소희	15 장안2부		102	한지현	22 대학부	정창원(19)
51	김민희	16 대학부	정창원(21)	77	전소희	15 장안2부		103	박혜은	19 대학부	정창원(19)
52	김지현	11 장안2부	정창원(21)	78	황준민	10 장안1부		104	윤지현	13 장안1부	김보록(4)
53	나태윤	6 장안2부	정창원(21)	79	오세호	21 대학부	황재훈(1)	105	송종호	17 대학부	황재훈(2)
54	오종호	18 대학부	정창원(21)	80	윤지현	10 장안1부	정창원(11)	106	김지현	9 장안1부	
55	김민희	2 장안2부	정창원(21)	81	김정호	10 장안1부	정창원(11)	107	김지현	10 고교부	고재민(1)
56	최지현	24 장안1부	정창원(21)	82	김지현	21 장안2부	오재영(24)	108	송종호	19 장안2부	김보록(15)
57	김지현	16 장안2부	정창원(21)	83	황준민	21 장안2부	정창원(21)	109	김지현	7 대학부	문운이(7)
58	이희재	4 고교부	정창원(21)	84	황준민	21 장안2부	정창원(21)	110	박지현	13 대학부	송종호(4)
59	김정현	4 고교부	정창원(21)	85	정창원	4 장안2부	정창원(21)	111	최지현	13 대학부	하(15)
60	이희재	18 장안2부	박지현(20)	86	이희재	18 대학부	정창원(21)	112	최지현	2 대학부	최지현(2)
61	노도라	18 장안2부	박지현(20)	87	이희재	18 장안2부	정창원(21)	113	최지현	2 대학부	최지현(2)
62	이희재	15 장안2부	정창원(21)	88	김지현	5 대학부	이은경(20)	114	최지현	7 고교부	이희재(7)
63	김지현	5 장안부	정창원(21)	89	정창원	17 장안1부	정창원(21)	115	최지현	8 대학부	정창원(8)
64	윤지현	4 중동부	정창원(21)	90	남지현	22 장안2부	이진규(24)	116	김지현	21 장안1부	정창원(24)

* 준창교회와 한 가족이 도기를 협력하는 본은 본은 2003년 새가족 등록식을 도시기기 대대히 하였습니다.

